

“우리가 지키겠다 멍” 수완동 반려견 순찰대 2기 출범



광산구청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활동 본격 시작

펫티켓 홍보·생활안전 점검 통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 기대

광주 광산구 수완동 미래발전계획 주민추진단(공동대표 임은진, 서충열, 안영숙)이 지난 20일 수완호 수공원에서 ‘수완동 반려견 순찰대 2기 활동선포식’을 열고 주민 주도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수완동 반려견 순찰대는 동미래발전계획의 대표 실행사업으로, 반려견 산책 시간을 활용해 지역 내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반려견 순찰대원과 가족, 수완동 미래발전계획 주민추진단,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활동 교육을 받은 뒤 순찰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반려견 순찰대는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펫티켓 홍보와 캠페인, 개인·합동순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1기 순찰대는 34개 팀이 참여해 개인순찰 2,149회, 안전신고 79건, 합동순찰 4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주도의 생활안전망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새롭게 22개 팀으로 구성된 2기 순찰대가 개인순찰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매일 1회 합동순찰을 진행한다.

또한 9월 펫티켓 합동 캠페인, 10월 반려견 가을운동회, 12월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나설 계획이

다. 임은진 수완동장은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 속 산책을 지역 안전과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주민 참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수완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완동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지역 내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안전망 구축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서기만 기자

광주 남구,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실시

본청 공직자 232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취약 분야 개선, 스마트 행정 경쟁력 강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직 사회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및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을 시행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진단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에 근무하는 부서장을 포함해 직원 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데이터 정책·분석 기

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 활용, AI 활용까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향후 필요한 교육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직위·직군에 관계없이 역량 수준을 분석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 교육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데이터는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역량 진단을 통해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번 진단을 통해 부서별 데이터 활용 현황과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교육과 사례 중심의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행

정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부서 간 공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반도 더욱 고도화한다. 주민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남구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스마트 마인드 교육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